

에 가서 慶州法酒나 막걸리마시는 일이다. 큰 古墳을 지나서 좀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집집마다 술집인데 그것이 모두 普通 民家로 되어 있고 看板이 없기 때문에 이 골목안에서 만든 열집에 잘 못 들어가서 술 판니까 물어봐도 主人이 화를 안내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집에 들어가면 시골색씨가 하나 둘 있어서 간단한 床에 特大접으로 술을 받아주는데 지금은 그 색씨의 모습도 數도 많이 달라졌지만 十餘年前만 하더라도 어딘지 田園美와 霧圍氣가 있어 술값도 싸고 술도 좋거니와 「니 뭐라카노」해가면서 一夕을 보내기란 참으로 旅行味가 있고 또 旅苦를 풀 수 있는 것이었다. 그때 當時의 國立博物館職員들로서 慶州에서 古墳發掘을 한 사람은 모두 제대로 自己가 世上 最高の 美男子라는 自負를 갖고 이 골목길에서 비틀거리며 나오게 되는 經驗이 있으며 한발 더 나가면 아무집은 아무개의 妻家집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수도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쪽생의 어느 집에 林先生이 잘 가던 단골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에 있는 나이 어리고 어여쁜 시골 색씨가 바로 春香이었다. 林先生은 自他가 共認하는 天真爛漫한 愛酒家라 慶州에서는 자주 그 집에 들리고 또 남에게 春香의 長點과 韓國的美를 宣傳하곤 했는데 무슨 特殊한 關係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도리어 周圍에서 春香이 春香이 해가지고 그 집을 林先生妻家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하루 作業을 마치고 宿舎로 돌아가는 途中에 길가 순대국집 앞을 지나가게 될것일 때 林先生이 히죽 웃으며 꼭 한잔만 합시다. 하고 먼저 들어가는데 우리들도 그럴 氣分으로 들어가 앉지만 一杯後一杯하다가 보면 또 英雄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林先生을 先頭로 세우고 또 그 妻家로 遠征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林先生은 그 特有的의 好人같은 웃음을 滿面에 터뜨리며 呵々大笑 談論百出해서 서로 時間가는 줄을 모르고 하였다. 그런데 林先生은 藥酒를 자시면 大醉하지 않았어도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지는癖이 있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林先生 열골에 그런 조그만 傷處만 있으면 하하여제 一杯酒하셨구나 금방 알곤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十餘年前의 일이며 그런 大酒의 勇氣나 能力이 彼此 없어지고 말았고 그때의 靑年들이 모

두 稱老하는 初老들이 되었다.

지난 여름 慶州에 갔을 때 알아본즉 春香은 그 職業을 그만둔지 이미 오래고 아무리 옛記憶을 더듬어도 그 春香이 집이 그 골목 어느 집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아마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故友는 가고 人生이 차츰 차츰 忘却의 寂寞속에 사라져가는 모양이다. 書室에 終日 獨坐해서 窓間을 내다보니 이제 白露의 黃葉도 늘어나고 最後의 ��암소리 들은지가 꼭 한달하고 一週日이 되었다. 피우다 남은 시가 一를 남기고 永遠의 世界로 돌아간 林先生이 별다른 意味에서 몹시 親近하게 느껴지는 날이다.

(六五、一〇、九日 한글날)

### 故 林泉先生任을 回顧하며

崔 容 完

작은 몸집에 검소한 옷차림 그리고 무관심하게 뒤로 넘긴 머리칼은 어딘지 조용한 모습이 시면서도 가느스름한 눈매로 쳐다 보시는 날카로운 視線은 서울南大門 補修工事가 시작될 무렵 林先生님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이었다. 다섯해 동안 자주 뵈고 때로는 모시고 일하는 기회도 있었으므로 先生의 생생한 모습들은 어제일처럼 선연하다.

再昨年 가을에 慶州 佛國寺 安養門 新築工事와 石窟庵 補修工事に 先生 生員에서 補助하는 數個月 동안 일에 執念하는 이외의 어떤 사사로운 時間도 先生의 生活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시면 곧 현장에 가서서 밤새것이 이리 높고 저리 높고 하시며 궁리하셨던 方法을 實物에 맞추어 보신다. 잠드시던 중에도 무엇인지 새로운 着想을 얻으시면서 숨치않고 자리를 걷고 불을 켜다 음 출거하시던 담배를 태우시며 이야기 하신다. 혹은 오밤중에 산길을 더듬어 現場에까지 가서 밝혀내고서야 다시 자리에 돌아와 잠들 수 있는 때도 있었다. 될 수 있으면 손수 해치

우려 하시지 이웃에게 맡기지 않는 습성이었다. 先生の 青年時節의 이야기를 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 테두리는 專門分野에서 벗어나는 때가 적었고 放談中에 筆者에게는 貴重한 學術資料가 되는 말씀이 많았다.

한가지 일에만 執念하여 精神과 體力에 피로를 느끼시는 때는 약주를 드신다 이時間은 當身自身과 周圍를 超越하여 幻覺의 기쁨에 젖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세상에 여인이 곱다면 그중에 머리를 닦는 손결이 더욱 고올다」고 하시던(유모인)는 아마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며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로 記憶된다. 善良한 氣質에 조금도 숨김없으신 態度는 많은 이웃들에게 惠澤을 주시며 도움이 되셨지만 殞命하신 時間까지도 當身을 들보려 하지 않으셨다. 가시기 얼마전 까지도 내가 관여한 工事に 具體的인 指導를 해주셨고 殞命을 며칠 앞둔 때에는 이미 生命을 諦念하시여 「일하기 어렵지만 좌중내지 말고 참고 도와서 잘들 하시요」라고 遺言하셨다.

日帝의 民族文化財抹殺의 회오리 속에서 濁流에 빠져 歷史의 흐름 안으로 살아져 버리는 民族의 遺言을 한아름 두아름 전져내시어 오늘날의 世代에 남겨준 必生의 偉業을 지금은 아는이 적을 것이나 어느때고 사람들이 民族本然의 意識을 갖는 날에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寶物을 안고 故人의 靈前에 感謝할 것이다. 十餘年만이래도 더 「生存하시어 더욱 훌륭한 事業을 하실 수 있으려면 短命에 가신 先生任을 衷心으로 哀悼하는 마음 금치 못한다.

考古美術 卍—

◎ 文化財第一分委(十四次)

九月十三日 開催 出席은 金庠基 李弘植 金斗鍾 金允基 金元龍 黃壽永委員 鄭永鎬專門委員 河局長以下 關係職員 「文化財指定資料調書」(油印物)에 따라 指定 討議가 있었음

龍珠寺大雄殿內幀畫(傳檀園筆)……保留

守城竹山里五層石塔……寶物可決

覺淵寺石造毘盧舍那佛坐像……寶物可決(槐山)

泰安磨崖三尊佛……寶物可決

柳西崖遺品(一括)……寶物可決 但現品提示 目錄作成

安東三功臣遺物……保留(現品提示調查한)

佛谷寺石造毘盧舍那佛坐像……寶物可決 但 臺座復元할 것

長山齋文集 木刻板……否決

安城竹州城……否決

梵魚寺大雄殿……寶物可決 (會議中 李相武議員(慶州) 出席하여 現地事情說明)

◎ 文化財委第一分委(十四次 續開)

九月十四日 午後二時開催 出席委員 前日과同一함

一、指定關係

趙末生墓碑(楊州)……否決

幸州紀功祠……否決

居頓寺址三層石塔(原城)……寶物可決

居頓寺址……史跡可決(原城)

興法寺址三層石塔……寶物可決(原城)

眞空大師塔碑 龜趺 및 螭首……寶物可決(原城)

忠正公遺書 및 遺品(高大博)……否決

桐華寺浮屠(昇州)……否決

海印日之印(潭陽)……否決

安東川前洞義城(金氏宗宅)……調査한(金允基委員)

鳳停寺華嚴講堂……調査한(金允基委員)

同 古金堂……( )

南海忠烈祠……否決

忠烈祠八賜品(忠武市)……寶物可決

廉義院(沃遷)……否決

褒忠祠(光山)……再調

魯鄒祠 및 七聯亭……否決